

# 강진버스여객터미널, '교통시설' 넘어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 기다림이 편안해지는 곳, 아늑한 쉼터형 공간 조성 관광·문화·특산물 한눈에, 지역 매력 알리는 관문

연간 50만 명이 이용하는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이 강진군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강진군이 터미널 매입을 마무리하고, 연면적 3,652㎡ 규모의 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 오래된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 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한 시스템까지 도입해 정보 안내와 관리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용자 편의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간의 쓰임도 달라진다. 터미널 내부

는 단순한 대합실에 머물지 않고, 강진을 알리는 '강진홍보관'으로 운영되며 관광·문화·특산물 등 지역의 매력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또한 청년 창업과 커피숍 같은 생활밀착형 기능도 담아, 누구나 부담 없이 들르고 머물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을 넓혀갈 예정이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타워 설치도 함께 검토된다. 터미널 이용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연결까지 고려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강진군이 그리는 터미널의 모습은 '교



통시설' 그 이상이다. 오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아늑한 쉼터 같은 공간, 그리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강진의 첫인상을 전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다. 강진군 관계자는 "버스여객터미널은 강

진의 관문이자 군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이라며 "나후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최신 시스템과 다양한 기능을 더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순경설 기자

전남 곡성군은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열여섯, 장미사춘기' 설렘·성장·변화 주제를 앞두고 축제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SNS 콘텐츠 공모전'을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변화하는 온라인 홍보 환경에 발맞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축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열여섯, 장미사춘기 - 설렘·성장·변화다. 제16회를 맞는 장미축제가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변화를 상징

### 곡성군,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SNS 콘텐츠 공모전 진행 '열여섯, 장미사춘기' 설렘·성장·변화 주제 전국민 참여

적으로 담아 장미처럼 피어나는 설렘과 성장의 순간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쇼츠 영상(15초 이내) ▲포스터 2개 부문이다. 쇼츠 영상은 짧은 분량 안에 축제의 감성과 기대감을 담아내는 형식이며, 포스터는 장미의 이미지와 축제의 상징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접수 방법과 세부 일정은 군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총시상금은 770만 원 규모로 수상작은 축제 공식 홍보물과 온라인 채널 콘텐츠 등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장미축제를 자신만의 시

각으로 표현해 주길 기대한다"라며 "많은 분들이 공모전에 참여해 축제의 설렘과 변화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2026년 5월 22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 열흘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장미가 만개한 장미공원을 배경으로 공연·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곡성/이정수 기자

##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블루카본 잘피 숲' 조성

### 신지면 양천, 고금면 봉암 해역 6ha 규모 잘피 중간 육성장 조성

완도군은 잘피 중간 육성장을 조성했다. 잘피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은 완도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어촌계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적지 조사를 통해 신지면 양천리와 고금면 봉암리 해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에 잘피 씨앗을 파종 후 약 30cm 정도가 자라면 씨앗을 채취해 더 넓은 해역으로 옮겨 심을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에는 신지면, 고금면 6ha 해역에 잘피 씨앗 30만 개를 파종했다.

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잘피 숲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그동안 민간 기업, 공단 등과 함께 바다 숲 확대에 힘써왔다. 2024년에는 효성기업과 협력해 13억 원을 투입,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1.59㎢ 규모의 잘피 숲을 조성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완도읍 장좌리 해역에 15만 주의 잘피 씨앗을 뿌렸다.

현재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존율과 정착 상태를 점검 중이다.

잘피는 연안에 숲을 이루며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해양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18억 원을 지원받아 소안면 미라리와 고금면 상정리 해역에 바다 숲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잘피 이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잘피 분포량의 약 60%를 완도 해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

완도/정성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무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안전교육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열고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수 잔가지와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파쇄지원단과 산림재난대응단, 관련 공무원 등 15여 명이 발대식에 참석해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현장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파쇄 작업 시 안전수칙과 장비 활용 요령, 사고 예방 사례 등을 다뤘으며, 동력 파쇄기 시연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관리 방법을 점검했다. /무안군 제공



### 진도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친절 서비스 실천' 캠페인

진도군은 12일에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급시장 일원에서 음식문화 개선, 위생, 친절의 실천과 관련된 운동(캠페인)을 했다. 이번 운동(캠페인)은 진도군과 위생업소 영업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해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손님맞이 실천 ▲위생 수칙 준수 ▲업소 위생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에 '바가지요금'이 없는 신뢰받는 진도, '친절, 청결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영업주분들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구례소방서, 화재 진압 유공 민간인 표창 수여

구례소방서(서장 한만조)는 12일, 최근 구례읍 봉동리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초기 진압한 군민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차량용 소화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의 주인공인 정양조 씨와 김진석 씨는 지난 2월 7일 구례읍 봉동리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해 신속히 초기 진화에 나섰다. 화재가 식당 내부에서 발생한 만큼 자칫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나, 두 사람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만조 구례소방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하게 초기 진화에 나서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